

지역적 문화 특성에 따른 감성 색채 비교 연구 - 가회동과 강남대로의 건축물 입면을 중심으로 - A Comparison of Sensibility Color according to Regional Cultural Characteristics - Centered on Building Façade of Gahoedong and Gangnam Broad Street -

김주연, 김소연
송실대학교 건축학부 실내건축전공, 조교수
송실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원

Key words: Sensibility Color, Regional Characteristics, Building Façade

1. 서론

최근 서울시는 도시경쟁력을 높이고자 문화예술콘텐츠 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공공디자인사업을 통해 도시 경관을 개선하고 있다. 그 결과 2008~2009년에는 일본, 중국, 동남아인이 뽑은 '가보고 싶은 도시 1위'에 선정, 2010년에는 뉴욕타임즈가 선정하는 가보고 싶은 도시 3위에 뽑히는 등 세계적인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서울은 한옥길이나 성곽 같은 역사적 경관과 첨단 IT 문명이 발달한 대로 중심의 경관, 혹은 사인 물 정비를 거친 리디자인(re-design) 거리 등이 그물처럼 얽혀 있어 강렬한 대비를 보이기도 한다. 이처럼 역사, 위치, 환경 특성에 따라 다채로운 경관을 가지고 있어 한 도시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극적인 반전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 특성이 지역 환경, 건축물의 환경 색채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해보았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고궁이나 한옥이 밀집된 역사적 경관과 첨단 IT문명이 발달한 오피스중심의 현대적 경관으로 대비되는 두 지역을 선택하고 문화와 역사, 지역적 특징과 색채배색에 대하여 비교 연구 하였다. 지역은 첫째, 고급 관리와 왕족이 주로 살았던 북촌인 가회동과 둘째, 강남역에서 교보타워 사거리까지 이르는 길 중심의 강남대로를 선정하였다.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문헌조사를 통해 두 지역의 지역, 환경, 역사 그리고 문화에 대하여 조사한 후 대표 되는 문화적 키워드를 도출하였다. 현장 조사로는 두 지역의 주변의 경관을 각각 촬영하여(Canon G10 30.5mm) 중경색을 기준으로 지역적 색채배색의 특성을 잘 나타난 장소를 위주로 실제 육안과 육안비색법으

로 보았을 때 색상이 가장 잘 적절하게 촬영된 사진을 분류하였다. 한국표준색 색채분석(Korea Standard Color Analysis)을 통해 빈도수에 의한 5가지 대표 배색을 추출하여 색상 분포를 비교하였다. KS 표기에 의한 주조색을 분석하고 Munsell 표색계를 이용하여 추출 색상의 명도 및 채도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그림 1. 북촌 가회동과 강남대로 연구사례 위치

3. 연구 사례 지역 특성 비교

표 1에서 연구 사례 지역의 역사, 행정위치, 지리적 특성, 주거특성, 경제, 그리고 현황을 비교 정리하였다.

표 1. 연구 지역 사례 특성 비교

구분	북촌	강남대로
역사	‘청계천과 종각의 북쪽에 있는 동네’에서 유래. 고급관리와 왕족이 주로 거주하는 북촌과, 종각 남쪽에 위치하고 하급관리와 상인이 모여 살던 남촌으로 나뉜. / 일제강점기 후 북촌은 조선인 중심으로, 남촌은 일본인 중심의 거주지역으로 자생적으로 발달	1972년 11월 26일 서울특별시가 한양천도 578주년 기념일을 맞아 시내의 이름 없는 59개 도로에 가로명을 붙일 때 영동1로라 불렀다가 1976년 6월 26일 현재의 도로명으로 바뀌어 오늘에 이른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본격 계획적으로 개발
행정 위치	종로구 재동 / 가회동 / 삼정동	강남구 신사동 / 서초구 양재동 일대 길이 6.9km, 너비 50m이며 왕복 10차선으로 강남구와 서초구 경계를 이

지리적 특성	풍수지리적으로 겨울에 따뜻하고 배수가 잘되며, 남쪽은 넓게 트여 한양의 안산인 남산 전망이 가능 지하철 3호선 안국역과 인접하나 구릉지를 따라 주거지역이 형성되어 도로로 접근성은 높지 않음	뚝 지하철 3호선 양재역, 2호선 강남역 9호선 신논현역, 7호선 논현역 등 역세권 밀집. 신분당선 연장선 개통으로 접근성 탁월하고 평지가 대부분
주거 특성	1930년대 서울 행정경계가 확장되면서 도심 주거형 한옥 밀집지역으로 변모. 근대화기에 도심유입 인구를 흡수하기 위해 전통한옥을 개조한 근대적 도시 공간으로 바뀜	도로변은 상업·업무지역이며, 아파트단지 및 빌라·연립주택 단지가 형성
경제	북촌한옥마을, 인사동전통거리, 경복궁과 같은 전통관광지구, 삼청동 일대의 카페거리	성형특화지구, 웨딩, 명품거리 등 소비문화 중심지
현황	한옥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하는 한옥 가꾸기 사업 진행 중	2007년 8월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 일환으로 미디어폴을 설치, 가로경관 개선

북촌지역과 강남대로를 연구한 학위논문과 인터넷 사이트 등을 조사하여 지역 문화적 키워드를 추출하고 비교할 수 있었다. 표 2 에서와 같이 두 지역의 건축적 요소에 따른 분류로 살펴보면 기능, 구조, 미의 세 요인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북촌은 한옥의 주택과 담장 등으로 건축적 형태에서 볼 수 있는 구조적인 요인으로 ‘곡선적인, 좁은, 부드러운, 폐쇄적인’의 키워드를 볼 수 있었다. 이에 대비해 강남대로는 ‘직선적이고 넓은, 격자형의 개방적인’의 감성키워드를 추출할 수 있었다. 19 개의 키워드를 통해 지역의 문화적인 특징 요인을 살펴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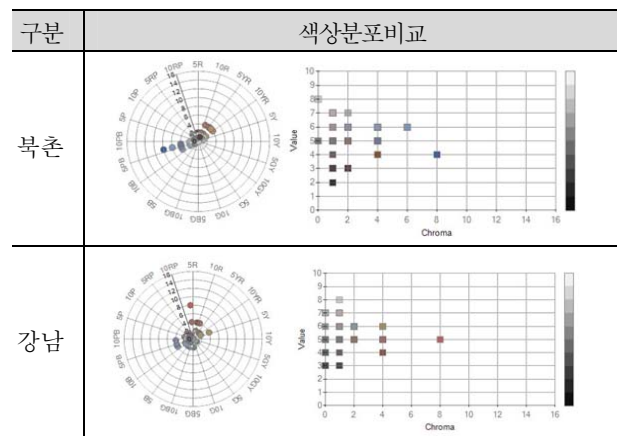
표 2. 지역 문화적 건축적 감성 키워드 추출

요인 구분	북촌	강남대로
기능	여유로운	역동하는
	보존적인	유동적인
	조용한	활발한
	고즈넉한	봄비는
	따뜻한	시원한
	자생적인	계획적인
구조	학술적인	유흥적인
	맞춤형의	통합적인
	곡선적인	직선적인
	좁은	넓은
미	부드러운	격자형의
	폐쇄적인	개방적인
	소박한	고품격의
	자연친화적인	인공적인
	유서깊은	젊은
	전통적인	세계적인
	회소성의	다양한
	역사성의	첨단적인
관습적인	미래형의	

한국표준색 색채분석(KSCA)에서 분석된 결과는 다음

과 같다. 각각의 분석이미지에서는 색상의 분포가 전체 30%이상의 빈도수를 보이는 색상만을 추출하였다. 북촌의 환경색채는 KS 8.75PB 7/2, KS 5RP 4/1, KS 5R 3/2, KS 10YR 7/1, KS 10R 7/1, KS 10YR 2/1, KS 10R 3/1 로 주로 YR 계열의 분포를 살펴볼 수 있었으며, 강남대로의 경우에는 KS 5PB 3/1, KS 5PB 7/1, KS 3.75PB 5/4, KS 5P 8/1, KS 5PB 3/1, KS N3, KS N4, KS 5RP 4/1 로 주로 PB 계열과 무채색의 색채 분포를 보였다. 강남대로의 경우에는 상업권 지역으로 R 과 RP 계열의 간판 색상의 비율도 보였다. 표 3 에서와 같이 두 지역 모두 증명도의 색채 분포를 보였다.

표 3. 지역 색상분포 비교



5. 결론

본 연구는 지역 특성에 따른 문화적 키워드와 환경색채 분포를 살펴보았다. 문화는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변화된다. 한국사회에서 진보적인 강남 지역과 전통적인 강북의 환경 모습을 볼 수 있는 북촌의 문화 차이를 살펴볼 수 있었다. 도시 계획적 맥락의 도로의 형태와 건축적 형태에서 구조와 미(美)의 문화적 키워드 모습을 비교해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지역적 감성 키워드와 색채의 상관관계를 분석 하기 위하여 기초적인 자료로 조사 연구에 의의를 둔다. 지역의 특성을 경관에서 알 수 있듯이 두 지역의 대비되는 색채 배색과 문화적 비교자료를 통해 향후 지역 문화의 이미지와 환경 색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한국표준색 색채분석,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2010)
이용자 측면의 북촌 한옥마을 이미지 영향요인 규명에 관한 연구. 차동성. 한양대학교 석사(2011)